

지스트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 28일(월) 제1회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개최



▲ 지스트가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월) 오룡관 회의실에서 제 1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과 경영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상훈 외부자문위원, 정해인 대학원총학생회장, 김기선 총장, 김상윤 위원장, 권동재 대학원부총학생회장, 박래길 교학부총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지난 2월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월) 오룡관 회의실에서 제1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와 소수만 참석한 대면회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와 2021년 청렴도 평가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별위원회는 청렴도의 중요성에도 매년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개선하고자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심의, 개선방안 도출 등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연구비 횡령·위법·부당집행 방지 대책 수립 ▲행정: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방지 대책 수립 및 예산 위법·부당집행 방지 대책 수립 ▲조직 문화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방안 수립 등 청렴도 분

야별 개선방안 수립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렴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상윤 전 지스트 감사가, 부위원장은 박래길 교학부총장이 맡았으며 16인의 위원과 간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모두 외부인사로 선임했으며, 주요보직자, 노조, 총학생회장 등 직군별 대표를 포함하여 전 구성원이 청렴도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총장은 “그간 자체청렴도 조사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청렴도 평가결과는 구성원 모두가 성찰을 통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스트가 모범적 청렴 기관으로 도약하여 윤리경영이 실현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